

융복합 담장 디자인 연구

박건규*, 김원석**, 김혜진**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박사과정*,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A Board Fence Design with a Convergence-style Mural

Gun-Kyu, Park*, Won-seok Kim**, Hae-jin Kim**

Doctoral Student*, Dept. of Formative Arts Design, Graduate School, Ko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벽화의 기법이 적용된 융복합적 성격의 판장형 담장 디자인을 제시한다. 기본적인 구조는 담장 평면에 회화적 요소를 담아 벽화가 그려진 담장이 된다. 여기에 담장 기둥을 중심으로 전력·통신 설비를 내장함으로써 담장의 고유한 기능 외에 가로나 정원조명, 방법설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면에서 복잡성과 확장성을 갖추었다. 담장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공장에서 규격에 맞춰 생산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이러한 디자인 제안을 통해 담장의 기본적인 역할인 공간 구획을 넘어 개인과 사회적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담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결과 심미적 효용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등의 사회적 기능에 까지 도움을 주는 폭넓은 융복합적 기능을 구현하는 담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주제어 : 벽화, 담장, 소통, 융복합 디자인, 공공디자인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board fence design with a convergence-style mural. The basic structure contains pictorial factors with mural paintings on the fence. It is also equipped with electricity facilities inside the fence itself, so it has not only the unique function of the fence but also the complexity and expandability in order to be used as a garden lighting and security alarm system. All the components meet the standard so they can be manufactured in a factory. Through this design proposal, this study tries to suggest a fence which encourages personal or social communication one another as well as the basic function of the fence. As a result, the fence realizes a broad convergence function of its usefulness for social functioning such as the crime prevention as well as an esthetic function.

Key Words : Mural, Fence, Communication, Convergence design, Public design

1. 서론

연구자가 제안하는 담장의 디자인은 무채색의 평면인 담장에 회화 요소와 기능성을 융합시키는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담장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부 공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대지(垜地)경계에서 그 밖으로 직접 면(a plane)을 드러낸다. 이 빈 평면은 인간에게 표현의 욕구를 자극하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인류사의 장구한 시간 동안 사람을 둘

Received 1 March 2016, Revised 8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Won-seok Kim(Kongju university*)
Email: wskim1188@naver.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러싼 평면인 담장이나 벽은 심미적 유희를 위한 공간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심미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의 기원(祈願)의 발현이기도 하다[1].

한편, 담장은 그 자체로 공간 구획을 통해 주체의 의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도시의 고층빌딩을 따라 도로에 세워진 가드펜스(guard fence)는 인명을 보호하고자하는 사회적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이 위주인 경계, 보안, 가드레일, 낙석 방지 등의 기능을 사회적 필요에 의해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2]. 더불어 농경 사회의 싸리 울타리도 생각해 보자. 싸리 울타리는 농민의 소박함을 보여 줄 것이고 솟대는 신적 존재와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 그로부터의 보호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상징한다[3].

결국 물리적 담장은 ‘마음의 벽’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처럼 인간의 심리와 연결된다. 심리적인 형태의 벽은 물리적인 객체를 디자인하는 것과 무관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인 벽에 대한 사유는 벽 또는 담을 바라보는 이의 입장을 반영한다. 그리고 나아가 벽의 본질에 관해 고민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담장은 건축구조물로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의식을 형성하는 ‘환경’으로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의 담장 허물기 등 담장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이 구역의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거나[4], 오래된 주택가를 중심으로 벽화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상에 변화를 도모하는 것[5]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담장이 가진 물리적 기능, 즉 경계를 구획하고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담장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담장을 회화공간으로 재인식하는 인식의 전환과 조명 등의 기능성을 융합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2. 본론

2.1 담장의 개념

본 연구의 주제어인 담장은 유의어로 ‘담’, ‘울타리’ 등을 떠올릴 수 있다. 또한, 외래어로서 ‘펜스’ 역시 생각할 수 있다.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수준에서 이런 어휘들은

같은 기능을 하는 구조물을 지칭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러므로 담장의 개념을 토대로 연관된 어휘들을 간단하게나마 검토하고자 한다.

건물이나 정원 공간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담이 부가적으로 다루어지는 연구는 다수 접할 수 있었으나 담 자체에 대한 연구물을 흔치 않았다. 정무웅의 연구에서는 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담장은 담, 장원(牆垣), 장옥(牆屋), 장리(牆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담장은 자중(自重) 이외의 다른 하중의 부담이 없는 구조물로서, 그 원시적인 발상은 방어를 목적으로 이용된 자연 상태 그대로의 성벽기능의 높은 언덕, 가파른 절벽에서 그 원형(原型)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의 바람, 파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서 본능적으로 취해진 시설이다. 더불어 일상적인 용어로서 담장이 갖고 있는 막는다는 개념 이외에 ‘둘러싼다(enclosure)’는 개념으로써 적극적으로 외부공간을 형성하는 의지로 전환된다[6].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장은 내부를 외부로부터 ‘방어한다’라는 의미와 공간을 형성하는 ‘둘러싼다’라는 두 가지 의미의 맥락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제시하는 담장디자인은 두 번째 제시된 ‘둘러싼다(enclosure)’라는 맥락에 주의를 기울인 작업이다.

담장은 건축 환경에서 외형적으로 다채로운 모양으로 시설된다. 그러나 그 기능적인 측면서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앞의 정무웅에 따르면 담은 기능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6].

- 1) 대지경계 확인에 의한 구분
- 2) 방어수단으로서의 성벽이나 교도소의 담장
- 3)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획(예를 들어, 전통한옥의 안채)
- 4) 공간구분, 행동유도를 위한 담장
- 5) 물리적인 기능으로서 바람이나 햇볕, 파도를 제어하는 경우

덧붙여, 울타리, 담과 연관어이자 유의어인 ‘벽(壁)’은 집이나 방 따위의 둘레를 막은 수직 건조물을 뜻한다[7].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벽은 위에 지붕을 씌움으로써 그 안에 내부공간이 완성된다. 또한 ‘석벽(石壁)’이나 ‘장벽(障壁)’이라는 용례에서처럼 보다 견고하고 가리어 막아 놓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외래어 ‘펜스’를 살펴보자. 영어에서 ‘fence’는 건물의 외부공간을 구획하거나 둘러치는 구조물이다. 판자, 철

선, 레일(rail), 그물 등을 면(a plane)을 이루는 소재로 하여 그 사이를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8]. 이 용어는 지역에 따라 목책(木柵)과 같은 울타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벽돌이나 석재를 사용한 담을 의미하기도 한다[9]. 국어사전을 보면 운동경기장에서 구장과 관중석을 구분하는 벽체를 ‘펜스’라고 해 두었는데 특히 야구경기장에서 그러하다[10]. 한편 건축현장에서 현장을 둘러쳐 가려 놓은 가설(假設)벽을 펜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아가 담과 울타리를 비교하였을 때, 울타리는 담의 유의어로서 담을 대신하는 물건을 뜻하기도 한다. 즉, 풀이나 나무 따위를 엮거나 엮어서 담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는 물건을 뜻한다[11].

부연하자면 담이 돌담이나 토담과 같이 보다 견고하고 차단된 것을 가리킨다면 울타리는 싸릿대를 세우거나 탱자나무를 심어 두는 것처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열기설기하고 개방적인 모습이다.

2.2 디자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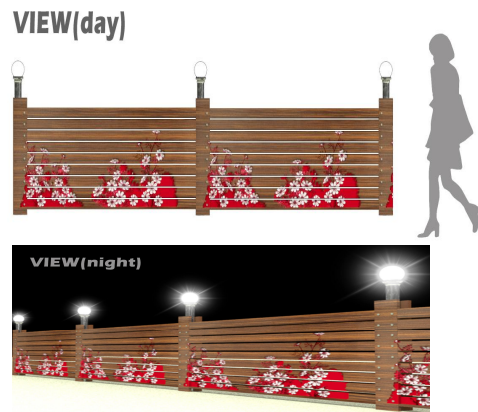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담장 디자인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장의 잠재된 평면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담장이 만들어내는 평면 ‘공간’에 심미성과 기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디자인 외형의 도출은 아래 이미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담장의 소재와 보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조명의 필요를 고려하고 그 장점을 취하여 하나로 융합한 것이라고 하겠다.



[Fig. 1] Design process

상단의 목책(木柵)은 나무라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주변경관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패턴이 단순하여 심미성이 적다. 중단의 시멘트블록을 사용한 담장은 방어라는 담장의 본연적인 기능에 충실하지만, 회색평면이 시선을 차단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단점은 원색을 사용한 벽화로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었다. 하단은 도로에 조명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야간 통행 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이다. 연구자는 담장이 생활의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방호와 심미성, 환경친화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담장을 디자인 하였다. 원목을 소재로 하는 판장(板牆)형태이고, 벽화의 기법을 활용하여 평면에 회화를 입혔다. 그리고 상단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야간에 회화의 심미성을 높이거나 통행 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 Object view: day&night

① 형태

제안된 디자인은 두 기둥사이에 널빤지를 가로질러서 담장을 구성하는 판장(板牆)을 기본 형태로 하였다. 두 기둥 사이에 적당한 폭의 널빤지(wood board)가 일정 간격으로 층을 이루면서 배열된다. 기둥에 필요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홈을 파서 널빤지를 홈에 맞춰 끼우고 이후 볼트로 체결하여 단단히 고정하는 방식이다.

상하로 긴 직육면체 기둥의 상부에는 조명기구나 동작감기기와 같은 방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널빤지를 층으로 배열하여 만들어진 평면에는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Fig. 1]의 중단과 같은 사례에서 착안한

것이다.

② 구조와 기능

이 담장의 구조 및 기능은 기둥, 널빤지, 조명, 그림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기둥은 담장의 하중을 지지한다. 층으로 배열된 널빤지의 무게는 기둥에 의지하여 지지된다. 또한 직육면체의 기둥 내부 공간은 기둥 상부에 설치될 조명기구 등을 비롯한 전자장비를 위한 전력·통신 설비를 매립하는 공간이 된다. 바닥에 배선하고 기둥 안으로 전선이나 통신선을 연결하면 선을 외부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 또한 공장에서 기둥 안에 배선을 마친 상태에서 조립되고 단자(socket)를 통해 체결하는 방식을 갖추으로써 현장 작업의 편리성을 더 한다. 원목 소재로 디자인된 본 담장은 시멘트블록을 사용한 담이나 철책에 비해 방호기능이 약하다. 하지만 조명이나 방호장비를 담장과 결합시킴으로써 경계와 예방의 형식으로 방호기능을 보강할 수 있게 된다.

담장이라는 구조물은 기둥사이에 가로질러지는 널빤지에서 완성된다. 층으로 배열되어 하나의 면을 형성하게 되는 이 부분은 안과 밖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담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전통 건축에서 많이 언급되는 바와 같이 담장은 차단하는 역할 외에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이런 부분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설치되는 널빤지의 층과 간격을 조절하여 높이를 결정함으로써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들어오는 경치를 바꿀 수 있다. 즉, 담장이 공간을 분할하지만 동시에 그 담이 설치된 장소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경관의 측면에서는 경관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널빤지가 만들어내는 평면은 회화의 공간으로 재인식된다. 나무가 가진 자연스러운 색채와 질감을 가진 평면에 그림을 입힌다. 기존의 벽화작업이 화가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공장에서 사전에 이미지를 프린팅하고 담장이 조립되었을 때 완성된 그림이나 무늬가 드러나는 것으로 구상했다.

③ 소재와 소재가공

소재는 기본적으로 통나무를 길이대로 종(縱)으로 자른 널빤지나 나뭇결을 살린 집성목(Collection tree)을 사

용한다. 담장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볼트나 조명기구 전력배선을 위한 부품을 제외하면 모두 이러한 원목을 소재로 사용한다. 나무소재는 그 자체로 환경친화적인 소재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그러한 느낌을 전달하기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담장이라는 것이 실외에 설치되는 것인 만큼 일광이나 기온변화, 강우와 강설에 견딜 수 있도록 천연 그대로가 아닌 가공된 목재를 사용한다.

목재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는 부드럽게 가공된 목재 표면에 음각하고 그 음각된 면에 채색한다. 음각된 홈으로 인해 채색된 상태가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조명하에서 그림이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심미성과 교류/소통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담장의 면에 프린트되는 그림이다. 그림은 보는 이에게 감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건물이나 건물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존 담장이 차단하고 방어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에서는 ‘벽화’라는 아이디어를 담장에 적용함으로써 심미성과 감상성에 무게를 둔다. 이러한 노력은 담장의 디자인을 통해 정서적으로 삭막한 외부 공간에 벽화를 그려 넣어 미적으로 정서를 환기 시키는 힘을 부여한다.

무채색의 담장이 만드는 삭막한 골목길을 화사하고 밝게 바꾸어서 범죄빈도가 낮아지고 주민들 간에 대면이 잦아진 사례[12]들을 참고해 보면, 담장에 디자인과 기능을 더함으로써 나타날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전통 건축물에는 뒷산의 능선을 닮은 지붕선이 그려 하듯이 담의 형태나 소재 자체를 주변 풍광과 조화시켜 미적 감흥을 끌어 올려 왔다[13]. 연구자는 담장 디자인을 통해 담장이 가지는 심미성, 감상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재현해 보고자 하였고 그 하나의 방식이 널빤지라는 자연스러운 소재에 벽화의 아이디어를 더해진 그림이 그려진 담장이다. 그림이 그려진 담장은 타인의 시선을 머물게 할 수 있다. 담장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그려진 담장을 매개로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무채색의 담장으로 인해 행인들이 심리적인 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담장과 그림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를 서로 체험 할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담장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체계의 최초 역할이자 가장 명확한 방어선을 만들어 놓는다. 주택의 경우, 담장은 건축물을 둘러싼 대지인 마당의 가장자리에 일반적으로 설치된다. 그러나 담장은 내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건축물을 두고 연상해 보았을 때 외부의 공간이란 건축물의 지붕과 벽체에 의해 내부공간과 분리되고 이때 발생하는 외부 공간은 담장에 의해 일차적으로 한정된다. 지붕과 벽체 담장은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인 동시에 시각적으로 경계를 확인해 준다. 또한 외부공간은 일차적으로 대지경계를 확정하는 담장의 설치로 규모가 한정된다. 그러나 시각적인 연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담장의 높이는 한정되어 있으나, 천장요소가 제거된 형태로의 외부공간 속에서는 하나로 흐르는 일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6,13.]

그러므로 담장은 그 담을 세워 경계를 가로막고 건축물을 둘러싸는 것에서 그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 그 벽이 만들어 내는 공간을 어떻게 환경과 어우러지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함께 향유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지에 대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예로 공공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노출된 외벽이나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이 있다. 딱딱하고 삭막한 느낌의 담장에 벽화를 그려 넣음으로써 학교 담장이 학생들의 미래의 꿈을 표현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14], 공사현장을 둘러싼 높다란 펜스에 벽화를 그림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현재화하는 의미 있는 평면 공간으로 변모시키기도 하였다[15]. 자칫 우울해 보일 수 있는 무채색의 담장이 그림그리기를 통해 '의미' 있는 공간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에 올리는 공간이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담장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담의 평면을 회화를 위한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벽화의 기법을 적용하여 회화적 요소를 품고 있는 담장을 디자인하였다. 담의 면에 회화를 가미함으로써 감상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경계 짓고 구분 짓는 담장으로서 보는 사람의 시선을 배척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시선을 유도하는 열린 성격의 담장이 될 수 있다.

담장은 환경의 일부가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담장으로 둘러진 안과 밖에 있는 누군가는 그 공간 내외에서 물리적으로 단절되게 되고, 모든 관계에서 배제되거나 억압되기도 한다[16]. 그런데, 담과 담이 모여 또 다른 공간을 형성하게 될 때 담에 마주하여 '소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담장의 정반대 편에서, 담장을 없앤 뒤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는 높고 두터운 담장만이 담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본문에서 논의 하였듯이 담은 공간을 구분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공간을 창조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담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심미적인 나아가, 생활의 안전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펜스 디자인의 유용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의 마무리 과정에서, 연구자는 본 디자인 제안이 함의를 갖는 것으로서, 스토리텔링의 관점 역시 고려하고자 한다. 미적 감수성의 자극, 충족의 문제, 실용적 장식미의 차원이 아닌, 외부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는 스토리가 생성되는 담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향후 더 나아가는 연구에서 충분히 발전 가능한 추가적인 함의를 지닌다.

REFERENCES

- [1] Gregory Curtis, *The Cave Painters: Probing the Mysteries of the World's First Artists*. New York, New York, USA: Knopf, 2006.
- [2] Dae-Woo Lee, Dae-Seong Moon, 'Public Area Characterized Fence Designing Simulation - Cultural Street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 furniture Society*, Vol. 20, No.4, pp.307-316, 2009.
- [3] Se-Chull Kim, 'The Communicativ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Sot-dae' Worship',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5, No. 3, pp.92-113, 2005.
- [4] Kyung-Don Park, Minjung Park, 'The Policy Effect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n Local Governm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Vol.14, No.1, pp.371-384, 2010.

[5] Gwan-Yeon Cho, 'Wall Painting Project and Its Impact on Andongne in Pusa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41, pp.263-293, 2011.

[6] Mu Woong Jung, 'A Study on the Wall as an Element of Outdoor Space,' Architecture, Vol. 23, No.6, pp.9-13, 1979.

[7] 'byeok', in Korean Dictionar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http://stdweb2.korean.go.kr>

[8] 'fence', in Dusan Donga Prime English-Korean Dictionary

[9] Patrick Hanks, ed. Collins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p. 534, 1985.

[10] 'pens', in Korean Dictionar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http://stdweb2.korean.go.kr>

[11] 'wultari', in Korean Dictionar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http://stdweb2.korean.go.kr>

[12] Hyung-Min Bark, Ji Tae Hwang, Jeong In Hwang, Euigab Hwang, Kyoung-Don Park, 'How to Institutionalize CPTED in Korea(II)',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Vol.12, pp.27-305, 2009.

[13] Kwang Soon Rim, 'Study of the Organic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Traditional Aesthetic of Architecture and the Natural Beauty Being Intrinsic in Traditional Furniture', Korean Furniture Society, Vol.20, No.5, pp.504-516, 2009.

[14]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o Draw Wall-painting on School Fences in Corporation with Educational Bodies', Press Release, updated 2015-06-12.

[15] Eugene Lee, 'GS Construction Cheongjin-dong construction Art Fence', Yonhap News, updated 2011-06-11.

[16] Amardo Rodriguez, 'Walls, Fences, an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Currents,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Vol.3, No. 4, 2008 (<https://www.natcom.org/CommCurrentsArticle.aspx?id=893>)

[17] George Kelling, Catherine Coles, Fixing Broken Windows: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 Free Press, 1998.

박 건 규(Park, Gun Kyu)



- 2003년 2월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학사)
- 2005년 2월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박사과정)
- 2005년 9월 ~ 2009년 2월 : 공주북

중학교 교사

- 2009년 3월 ~ 현재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교사
- 관심분야 : 공공디자인, 조각, 미술
- E-Mail : gunkou@hanmail.net

김 원 석(Kim, Won Suk)



- 1984년 8월 :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 졸업(학사)
- 1988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공예과 요업디자인전공 졸업(석사)
- 1990년 4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 E-Mail : wskim@kongju.ac.kr

김 혜 진(Kim, Hae Jin)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도예과 졸업(학사)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도자예술(석사)
- 2009년 10월 : SOTHEBY'S INSTITUTE OF ART (Singapore)
- 2011년 8월 : 한양대학교 응용미술(박사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국립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도자공예, 문화예술기획, 예술콘텐츠
- E-Mail : artceramic@kongju.ac.kr